



제목	The Neolithisation of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bow Books
발행일	2014. 8. 3.
저자	R. Matthews, H. F. Nashli (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72
ISBN 또는 ISSN	978-1782971900

내용 요약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고대 농업 지대, 즉 비옥한 초승달(Fertile Crescent)이라 불리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곳에서 지금부터 8,000-10,000년 전에 일종의 혁명이 일어났다. 구석기시대 인간의 생활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획기적인 삶의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말하자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면서 사냥으로 먹이를 구하던 것이 정착식 농경 생활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페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반 세기 전에 이미 학문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별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란의 신석기화』라는 제목의 이 책에 실려있는 18개의 논문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이란이 신석기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데 기여한다.

이 책에서 이란 고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란의 지형과 경관의 변화와 지속 상태, 간헐성과 연속성의 상관 관계, 그리고 그 패턴을 고민한다. 신석기 시대 정주민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패턴을 연구하고 동굴 사용 방법과 동물을 기르는 방식,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물로서 현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신석기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란인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